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시고 따듯이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군의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뜻깊은 4월의 경축행사에 불러주시는데 이어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의 신념과 강인담대한 배짱, 비범특출한 령도력으로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며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넘친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항일선렬들이 물려준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걸고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강력한 보루를 억척으로 다져나가는 영예와 보람속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을 맞이한 군지휘관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계승은 단순한 대물림이 아니라 투쟁정신의 계승, 힘차게 살아남는 불굴의 념의 계승이라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우리 군



대의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원천이라고 하시였다.

세상 그 어떤 강적도 진롭게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력사는 세계의 군건설사에 전무후무하다고 하시

면서 위대한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혁명군대는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변색과 변질을 모르고 언제나 필승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무력은 붉은기를 사수하고 붉은 사상을 지키며 붉은 제도를 옹호보위하는 당의 붉은 총대, 붉은 보검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출기찬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는 사랑하는 전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에 이어 항공공포전대 전투원들이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당중앙뜨락에 강하하고 군지휘관들이 본부청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부국강병의 대업을 실현해가는 전투적려정에서 맺어진 령도자와 전사들사이의 혈연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를 모시고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박정천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연설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번드시 튼튼부흥할 우리 국가를 위하여 추배를 들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즈음하여 4월 25일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화환이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혈전만리를 헤

치며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창조한 항일선렬들의 공적과 만고의 항쟁사를 경건히 회억하시면서 김책동지, 안길동지, 류경수동지, 최현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혁명렬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1세대 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투철한 신념, 자기의 위업의 정당성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니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을 사생결단의 정신력으로 뚫고 이기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계승의 력사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통을 창조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역년 드물지 않는 초석을 다진 항일빨찌산의 불멸의 공적은 후세도록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센 뿌리이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송고한 정신이며 금은 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주체의 건군사는 백두산정신의 무궁무진한 견인

력과 불멸의 생명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사에 길이 빛날 4월 25일이 있어 세계적인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혁명무력의 오늘이 있고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이 있다고, 사상의 혈통, 신념의 피로 이어지는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라고 하시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념은 우리 혁명강군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